

인류의 문화·역사·삶 담긴 '보물중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

이형준 지음



황산산(중국), 정안 경관 단지(베트남), 메테오라(그리스), 마추픽추 역사 보호지구(페루), 태즈메이니아 야생 지대(오스트레일리아)...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이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 삶이 총체적으로 담긴 인류의 보배로운 자산이다.

2018년 11월 기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총 1092점이 등재돼 있다. 문화유산 845점, 자연유산 209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갖춘 복합유산이 38점이 이른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가진 나라는 모두 167개국이다. 그 가운데 복합유산을 가진 나라는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그리스, 페루 등 29개국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모두 13점이 등재돼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 문화유산 12점과 자연 유산 1점이 포함돼 있지만 복합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없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 때문에 많지 않다. 다양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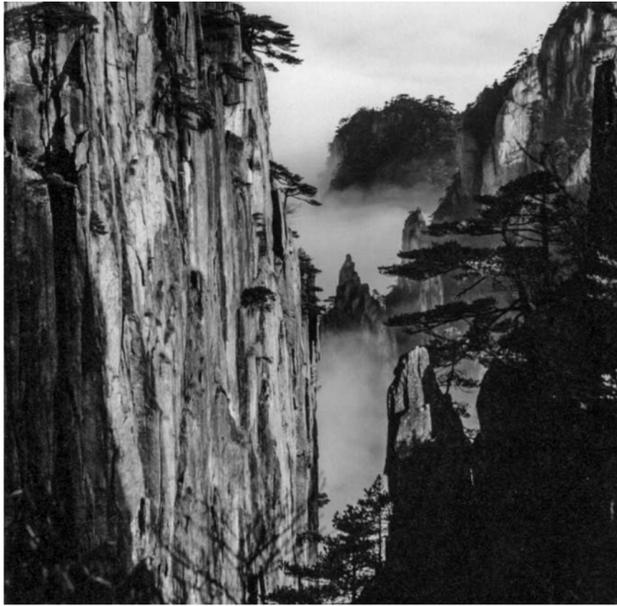
화유산이 있는 이탈리아나 뛰어난 자연유산이 있는 캐나다에는 세계 복합유산은 없다. 그만큼 양쪽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사진으로 보는 해인사·팔만대장경'의 저자 이형준이 펴낸 '교과서에 나오는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은 모두 15곳의 복합 유산이 담겨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아우른다. 아시아에는 중국의 '황산산', '타이산산', '어메이산과 러산 대불', '우이산'과 터키의 '괴레메 국립 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 유적'이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정안 경관 단지'도 포함돼 있다.

중국 상하이 서남쪽 안후이성에 위치한 황산산은 둘레가 250km에 이를 만큼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진한 녹색과 어두운 회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가까운 모습"으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힌다.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진 거대한 바위산으로 토종 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의 정안 경관 단지는 세월이 따른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가파른 산과 수심이 낮은 송고이강을 중심으로 작은 마을과 경작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렵과 채집생활을 하던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규모는 작지만 동남아의 특유의 지형과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페루의 마추픽추



소나무·기암괴석·운해가 연출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산산의 신비로운 풍경.

는 열대 산악림과 문화 유적이 공존한다. 잉카인들이 만든 유적 마추픽추는 '시간을 잃어버린 공중 도시'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뛰어난 도시 건축 양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교한 지하수로 인한 감탄을 짓게 한다.

저자는 "유네스코 복합 유산은 장소와

시대, 국가와 민족을 떠나 온 인류가 본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물 중의 보물"이라며 "거대한 자연을 무대로 동식물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만들어 낸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공주니어·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경' 키워드로 조명한 시대와 공간, 그리고 예술

풍경이 온다

서영채 지음



"공간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장소는 주관적이다. 주체의 개입이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만든다.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장소는 주인이 있다. 풍경의 주체는 풍경을 보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풍경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며 또한 동시에 풍경에 의해 포착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풍경'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시대와 공간 그리고 예술을 탐미하는 책이 출간됐다. 목포 출신의 서영채 서울대 교수의 '풍경이 온다'는 공간을 넘은 풍경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공간의 개념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공간과 그것을 매개로 한 사유는 인문사회과학 전반

에 중요한 이론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공간이 아닌 풍경에 이력했을까. 저자는 이러한 마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홍상수 영화에서부터 스피노자, 뉴턴, 칸트와 헤겔을 거쳐 네덜란드 풍경화까지 이른다. 그 과정에서 셰익스피어와 갈릴레이가 등장하고 그 배후의 세르반테스까지 만난다. 이렇게 시공을 가로지르다 도착한 곳은 공간과 장소의 불일치였다.

저자가 처음 책을 구상했을 때부터 공간은 풍경보다 중요한 단어였다. 그러나 이후 기획이 가동되면서 공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풍경이라는 개념이 불쑥 튀어

나왔다고 한다. 저자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쌓이면서 바로 그것이 풍경의 속성임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 사람을 습격하는 것이야말로 풍경의 존재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힌다.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한 사람이 풍경과 만나는 순간을 이야기한다. 풍경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놀라운 경치가 아닌, 바라보는 시선 끝의 장소와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의 장소가 격렬하게 부딪혔을 때 태동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를 '풍경의 습격'이라고 명한다.

2장에서는 라이스달, 베일리, 램브란트, 프리드리히 등 북유럽화가들의 작품을 토대로 풍경을 풀어낸다. 사람이 없는 그림이 풍경화인데 어떻게 그 안에 풍경의 시선이 담길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저자는 풍경화는 속성상 사람이 없어야 시선

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위계가 전도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잠시 풍경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돈키호테'를 중심으로 신에 대한 관념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근대 자연과학자와 철학자들의 공간 관념을 다룬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객관성이 하나의 전체적 세계를 이루는 절대성을 전제로,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신이 세계라는 무대 안으로 들어온 연극을 상정해 공간을 설명한다.

장소가 지닌 상징성 너머의 윤리를 다루는 내용도 있다. 6장에서는 주체가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가 되는 상황을 다룬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장소는 주체를 생산하기도 한다. 장소 너머의 공간을 사유하고 그 자리에 풍경의 시선이 놓이는 상황을 다룬다.

7장에서는 홍상수 영화 '북촌방향'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해석하고, 8장에서는 풍경의 문이 열리며 장소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존재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나문나무출판사·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철학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오명을 쓴 이유가 사람들이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해 생각해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지은이 아마구치 슈는 자신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철학·사상 중 50개를 책에 담았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 책은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로 그 어떤 책보다 실용적인 철학 사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은 새로운 철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다산초당·1만6000원〉

▲맹자씨, 정의가 이익이라고요?="양혜왕" 상하면 원문을 그대로 빠짐없이 통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야옹'의 도움을 받아, 상상의 날개를 무한히 펼쳐 캐묻고 생각을 나눈 세 친구들의 흥미로운 대화로 짜여 있다. 문맥의 흐름도, 재미난 민화 삽화, 원문 다시 읽기, 맹자 연표 등은 누구나 쉽고 단단하게 맹자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평사리·1만3000원〉

▲일하는 방식의 혁명=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의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지침서이다. 25년 동안 삼성물산과 회장 비서실, 여러 계열사에 몸담으면서 경리, 관리에서부터 인사기획, 경영혁신 업무를 수행한 이재산 협동조합 피플스 그룹 대표이사 스마트 워크(Smart work)

의 핵심을 알려준다.

〈노드미디어·1만5000원〉

▲상해임시정부=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청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눈물겨운 투쟁을 그렸다. 김규식을 파리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하기 위해 여운형은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을 결성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이 훗날 상해임시정부의 씨앗이 됐다. 여운형, 장덕수, 김철, 선우혁 등은 고작 20대 중반에서 30대로 이루어진 청년들이었지만, 스스로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개척했다.

〈고트북이엔티·1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홍사과의 인기 비결=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덟 살 별이는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홍사과는 여자 아이가 전학 온다. 그런데 별이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친구 관계가 홍사과가 전학 오고 난 뒤, 홍사과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겪는 별이, 도대체 친구들이 왜 홍사과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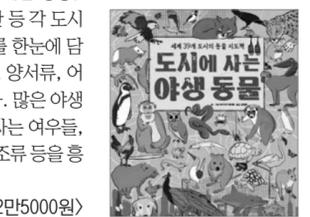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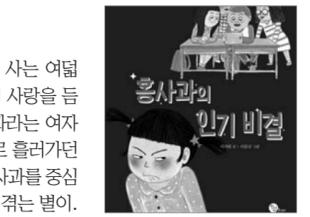
〈청어람주니어·9000원〉

▲궁금해요, 김구=출판사 풀빛의 '재학년 첫 역사 인물'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이다. 정영실·신사임당·정약용·윤동주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동참한 김구를 만난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통일된 조국을 꿈꾼 독립운동가 김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조명한다.

〈풀빛·1만1000원〉

▲도시에서 사는 야생동물=6대륙의 39개 도시에서 사는 야생 동물을 다룬 이야기. 각 도시의 지도에는 공항, 동물원, 수족관, 동물 관찰 장소, 녹지 공간 등 각 도시의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다.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담은 지도를 배경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도시에서 사는 각종 동물들을 소개한다. 많은 야생 동물 중에서 영국 런던의 더 샤프 빌딩에 사는 여우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시티에 사는 각종 조류 등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만난다.

〈그린북·2만5000원〉



리얼승무원 도전기

비행기 타고가요

CHANNEL